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7년 4월 4일 화요일
제208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애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사진=편집국 사진부 양희성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3월 3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창간 97주년 기념식에서 10년 장기근속자 및 동아일보 임원진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독자가 공감하는 콘텐츠에 동아의 미래 달려”

동아일보 창간 97주년 기념식… 동아 3대 실천과제 제시 김재호 사장 “다름은 또 다른 힘… 청년일자리에도 매진”

“남은 3년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김재호 사장은 3월 3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일보 창간 97주년 기념식에서 동아의 첫 100년을 3년 앞둔 현재 우리의 준비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공감의 힘으로 조작뉴스에 맞서야

김 사장은 동아일보 100년의 첫 매듭을 잘 짓기 위한 실천과제로 △독자와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감 콘텐츠 제작 △‘다름’으로 달라짐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을 꼽았다.

공감 콘텐츠와 관련해 김 사장은 “콘텐츠에 온기가 깃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의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미디어 환경의 혼란이 올바른 판단과 가치 있는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의도가 거짓을 지어내고 뉴스를 조작하고 또 그 뉴스를 연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며 “저널리즘의 기본을 소홀히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지키기 않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것이 동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뉴스를 세상에 전할 때 공감의 힘을 얻고 가짜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해선 “다름’으로 달라지자”고 제안했다.

김 사장은 “동아일보만의 기사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의 뉴스 콘텐츠가 예전과 다른 지면과 디지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달 될 때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름은 또 다른 힘이 되고, 그 다름으로 동아일보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문제 지혜 모아달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동아일보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꿈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사회적 책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



김재호 사장이 3월 31일 창간 97주년 기념식에서 “동아의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함께 또 한 번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가자”며 창간 기념사를 하고 있다.

는 일에 동아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각자의 영역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은 언제나 동아의 자부심이고 긍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첫 100년이 자랑이 되고, 또 다가올 100년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먼저 고민하고, 미리 내

다보고, 또 실천해나가겠다”며 “‘동아의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함께 또 한 번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동아일보 창간을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장기근속자에 표창 수여

이날 기념식에는 장기근속 임직원 63명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김 사장은 “장기 근속자를 포함한 바로 여러분들이 동아의 매 순간 영광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영훈 논설위원, 계수미 콘텐츠기획본부 전문기자, 김진경 지식서비스센터 부장, 최혜식 마케팅본부 기획위원, 조재현 AD본부 부장은 30년 근속 공로패를 받았다.

20년 장기근속자 26명, 10년 장기근속자 32명도 표창을 받았다. 김진경 지식서비스센터 부장은 답사에서 “우리의 혁신 노력이 동아일보의 도약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자”며 “창간 97년, 꿰어오르고 있는 우리의 저력을 믿자”고 말했다.

매일 아침 독자들에게 동아일보를 전달할 독자센터 사장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40년 근속 충주연수독자센터 이종묵 사장을 비롯해 30년 근속 1명, 20년 근속 15명, 10년 근속 25명 등 총 42명이 표창을 받았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채널A 재승인, 품격있는 방송으로 거듭납니다

채널A 3기 방송시대 출범… 공정성 실현과 다양한 방송에 주력

채널A가 두 번째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며 ‘채널A 3기 방송시대’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널A, JTBC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채널A의 승인 유효기간은 2017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미디어 관련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3명의 심사위원들은 프

로그램의 공정성과 편성의 다양성, 시청자 권익 보호, 콘텐츠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위

채널A는 재승인 심사위원들과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시청자의 꿈과 공정한 여론을 담겠다’는 기본 이념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을 작성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품격을 담은 채널A △다양한 세대·계층의 꿈을

담는 채널A △공정하고 건전한 여론을 담은 채널A △다 함께 가는 채널A 등 4대 비전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의 의견청취 자리에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직접 참석해 채널A의 ‘퀄리티 저널리즘 구현’과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채널A는 1000점 만점에 661.91점을 받았다.

특히 채널A는 총 5개 심사항목 가운데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서 중편 3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4개 심사항목인 △2014-2016년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

성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방송발전 기여에서도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계획 차질 없이 추진

채널A는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뿐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했던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A-Pride 콘텐츠 확산’이란 경영방침에 따라 공정성 실현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와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을 통해 방송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김남호

위대한 동아의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창간 97주년을 맞은 동아일보가 ‘위대한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는 두 번째 재승인을 받아 더 품격 있는 방송으로 비상하고, 88년 역사의 동아마라톤은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해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능에 역사를 입히고, 여성동아 표지에 처음으로 남성 아이돌이 등장하는 등 동아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東亞日報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우리 같이 달려요” 3만 5000여명이 함께한 명품 마라톤



3월 19일 '2017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8회 동아마라톤대회' 풀코스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출발선을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동아마라톤은 국내 유일의 국제육상경기연맹(AAF) 골드라벨 레이스다. 올해는 사상 최대 인원인 3만5000여 명이 참가했다.

동아마라톤 참가자수 신기록 채널A중계 '슈팅카' 첫 등장

3월 19일 열린 '2017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8회 동아마라톤대회'는 축제의 장이었다. 국내 마라톤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5173명이 참가해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좋은 기록들도 쏟아졌다.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은 케냐의 에이머스 키프 루토 선수(2시간15분54초)에 이어 2-5위 선수 모두 2시간6분대를 기록하며 동아마라톤이 '기록의 산실'임을 증명했다.

달리는 즐거움을 선사한 동아마라톤... '펀런(Fun-Run)'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성 참가자가 3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많은 연인들은 함께 뛰며 '달리기 데이트'를 즐겼다.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뛰는 모습도 제각각이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뛰는 모습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거리 표시판마다 멈춰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잠든 딸이 탄 유모차 밀며 달리는 젊은 엄마도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와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공을 들였다.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기념품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에 착안한 시도였다. 제88회 동아마라톤을 의미하는 숫자 '88' 모양을 본뜬 완주 기념 메달은 참가자들의 셀카 필수 아이템이 됐다. 이름이 새겨진 참가 번호표,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새길 수 있는 완주 기념 러버 밴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km 출발지에 설치된 채널A 컬러 선크림·타투 스티커 배포 부스, 결승점인 잠실 종합운동장에 등장한 잡지 표지처럼 꾸민 포토 박스와 이동식 동아일보 포토월은 최고의 인기 장소였다.

모두가 놀란 '채널A만의 중계'

채널A는 지난해 동아마라톤을 첫 자체 생중계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개념 마라톤 중계'를 선보였다. 향상된 기술력으로 현장의 숨소리와 선수들의 몸동작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

이번 동아마라톤 생중계에선 'RC슈팅카'(무선조종자동차에 카메라를 단 장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주로 뮤직비

디오나 영화에서 쓰이던 RC슈팅카를 스포츠 생중계에 활용해 역동적인 영상을 담아낼 수 있었다. 또 국제신호 송출, 자막, 방송 회선에 이르기까지 중계방송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마스터 콘트롤 시스템'을 상암동 DDMC가 아닌 종합운동장으로 옮겨 현장감을 강화했다.

또 기존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송기술 대신 LTE 방식으로 마라톤을 중계하면서 끊김 없는 선명한 화면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런 성과들은 채널A 전략기획본부와 제작본부, 채널A 미디어텍, 채널A 뉴스비전, 채널A B&C가 최고의 중계를 위해 땀 흘린 결과였다. 오랜 전통에 다양한 시도가 더해지면서 동아마라톤은 또 한번 진화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안중산 전략기획본부 프로그래밍팀 김순겸



잡지 표지 모델로 변신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포토 박스(왼쪽),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옮겨온 '마스터 콘트롤 시스템'(오른쪽 위), 역동적인 영상을 담아내며 활약한 RC슈팅카.



대선 주자들 “채널A 청년문제 토론회서 땀 뻘뻘”



66
청년들에게 희망을,
동아미디어그룹에게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
99

3월 18일 상암DDMC에서 진행된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녹화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김승권 정치부장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강연 중인 유승민 의원(오른쪽 위). '약속 2017' 표지판을 들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활짝 웃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아래).

TED식 강연 + '송곳검증' 패널... 일자리공약 실현가능성 등 점검 이재명·유승민·안철수·안희정 출연해 입담 과시

채널A의 대선주자 토론회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가 차별화된 소재 선정과 기획으로 네 차례 방영을 성공리에 마쳤다. 동아미디어그룹 내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 또 하나의 'A-Pride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채널A는 2월 말부터 이재명, 유승민, 안철수, 안희정 대선후보를 차례로 초청

해 대선주자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확고한 타깃을 정해 타방송사의 대선주자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줘야한다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청년문제'를 주제로 15분 남짓 강연을 했다. 후보와 방청객간의 거리를 최소화한 무대 설치와 원고 없이 대화하듯 진행된 강연 방식은 미국의 세계적 공개지식 강연인 'TED'를 연상케 했다.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등장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을 직접 선정할 만큼 강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강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동아일보·채널A 기자와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패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후보들이 내세운

청년일자리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2030세대 청년 70여명으로 구성된 방청객들 역시 패널에 뒤지지 않는 질의로 후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시도도 이어졌다. '관찰 카메라 24시' VCR은 대선후보의 인간미를 카메라에 가감 없이 담았다. 네 차례 토론회는 채널A 방송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계됐다. 이재명 후보 방송의 경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동시 접속자수가 4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는 준비 과정에서 그 어느 프로그램보다 협업이 강조됐다. 채널A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전략기획본부, 동아일보 편집국, 논설위원실, 채널A 뉴스비전 등 동아미디어그룹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협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작진은 공용메일 이름을 '어벤져스(Avengers)'로 정하고, 서로를 어벤져스라 불렀다.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동아미디어그룹에게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작본부 제작1팀 김경훈

오래남, 개밥남, 하트시그널... 채널A 봄맞이 새 단장

친환경 농수축산물 이젠 '도담촌'에서

역사에는 '오래남' 앞세워 신장르 개척
내달까지 '개밥남 시즌2' '하트시그널' 등 다양한 주제로 선포

'다물'을 오픈몰로 새단장
오프라인 매장도 열 계획



3월 28일 서울 마포구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오래남) 제작발표회에서 다섯 캐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안정환, 한상진, 조세호, 서누.

채널A가 봄을 맞아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역사, 동물, 연애 등 다양한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 '떡방'(먹는 방송)이나 '국방'(요리 방송), '집방'(인테리어 방송)에서 벗어나 새롭게 선보이는 '사방'(역사 방송)이다. 역사라는 무거운 주제에 여행이라는 대중적인 코드를 접목시켜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역사를 배웠지만 오래돼 기억을 잊은 아재들, 역사를 배울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이 유적지를 여행하며 역사를 배우고 느끼는 프로그램"이라며 "오래남을 통해 역사를 편하게 접하고, 문화 유적지 여행을 떠나는 가족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史)방' 신장르 개척



4월 1일 첫 전파를 탄 <사심(史心)충만 오래남>은 다섯 명의 캐남(성격이나 하는 일이 시원시원하고 막힘없는 남자)들이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역사 예능 프로그램이다. 최근 방송가의 트렌드

다섯 캐남들은 방송인 김성주를 비롯해 전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 배우 한상진, 개그맨 조세호, 가수 '몬스터 엑스'의 서누다. 이들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진정한 캐남이 되기 위해 한국사 스타 강사인 이다지 씨와 함께 역사 유적지로 여행을 떠난다. 오래남의 박세진 PD는

1일 방송에서 오래남은 역사유적이 많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강화도로 여행을 떠났다. 걸그룹 EXID의 멤버 하니와 헤린도 게스트로 합류해 활력을 더했다. 이들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민족의 아픔이 서린

현장을 차례로 돌아보며 꼼꼼하게 필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성주와 안정환은 집에 있는 자녀들을 떠올리며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다시 한 번 와서 알려 주고 싶다"고 말하며 역사공부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후문이다.

개밥남 시즌2로 컴백



'팻방' 트렌드를 선도했던 <개밥남>은 4월 <개밥남 시즌2>로 돌아온다. 이번 시즌2에서는 새로운 얼굴과 신선한 포맷으로 지난 시즌과 차별화를 꾀한다.

시즌1에선 귀여운 대중소 웰시코기 삼둥이가 프로그램의 매력 포인트였다면, 시즌2에서는 출연자와 반려견 사이의 진정한 교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반려견 전문가가 출연해 동물이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연애심리 추리 예능



5월 편성예정인 <하트시그널>은 청춘남녀의 달달한 '연애'가 주요 콘셉트다.

남녀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인 시그널들을 분석해 이들의 연애심리를 추리한다. 하트시그널은 지난 2월 3일부터 페이스북에서 연애 팀이 담긴 단편 드라마, 인타부, 카드뉴스 등을 공개해 2049세대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방송에서는 썸만 타며 애대우는 청춘남녀들에게 본격적인 '하트시그널'의 세계를 알려준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불꽃 튀는 시그널들을 통해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짜릿함을 맛볼 수 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염희진

동아미디어그룹 사내 온라인 복지몰인 '다물(DA-mall)'이 친환경 농수축산물 전문몰 '도담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다물이 동아미디어그룹 사우 및 퇴직 사우들만 이용하는 사내 폐쇄몰이었다면, 도담촌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몰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몰과 연동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담촌이란 브랜드명은 사내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도담촌의 '도담'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 '도담 도담'에서 따왔다. 여기에 '마을(村)' 자를 붙였다.

도담촌 로고는 '도담'과 '촌' 글자 사이에 '사랑 애(愛)'를 넣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의미를 내용 속에 담았다.

도담촌은 4월 말 즈음 온라인몰을 정식 오픈하고, 같은 시기 송파 파크 하비오 착한식당촌 내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 계획이다.

동아에드넷 신사업기획팀 김지혜

DBR의 명품콘텐츠, 네이버 통해 날개 단다

이만갑, 이젠 글로벌 핫이슈

모바일 '비즈니스 주제판'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
합작법인 세워 신규사업 발굴

영국 지상파 '채널4' 탐사프로그램 대대적 보도
상암동 제작현장 방문... "탈북자 인권에 큰 관심"



동아미디어그룹의 명품 경영콘텐츠들이 모바일에 최적화돼 3월 23일부터 네이버 '비즈니스 주제판'에서 서비스되고 있다(왼쪽). '비즈니스 주제판'에서 서비스되는 동아비즈니스리뷰(DBR).

동아미디어그룹의 명품 경영 콘텐츠가 모바일에 최적화돼 독자들을 찾아간다. 동아일보는 3월 23일 네이버 모바일에 '비즈니스 주제판'을 개설했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경영전략, HR, 마케팅, 자기계

발 등 고품격 비즈니스 콘텐츠들이 네이버 모바일 주제판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타깃은 성공을 원하는 3049 비즈니스맨들이지만 경영에 관심을 갖는 취업준비생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품격 프리미엄 격주간지 동아비즈니스리뷰(DBR) 콘텐츠를 모바일에 맞춰 재구성했다. 하나의 콘텐츠에 핵심 인사이트 하나씩을 담아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동아일보, DBR 등에서 파견된 경영전문 기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MBA 수준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제작까지 나선다.

비즈니스 주제판은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었다. 미래전략연구소 모바일전략TF팀이 중심이 돼 올해 1월부터 네이버 비즈니스 주제판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자체 콘텐츠 제작 및 제휴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한 달 머물면서 비즈니스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타깃 군을 설정했다. 이런 노력 끝에 자체 제작 콘텐츠와 DBR 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 약 300개를 축적했고, 우수한 외부업체 50여곳과 제휴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동아일보는 '비즈니스 주제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월 중 네이버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등 새로운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연구소 모바일전략TF팀 신무경



3월 10일 영국 '채널4' 제작진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현장을 촬영한 뒤 출연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만갑 내용을 크게 보도하는 것은 물론 탈북자 인권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이만갑 제작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것.

3월 10일 영국 지상파 채널인 '채널4' 제작진들은 상암동 DDMC 이만갑 제작현장을 찾았다. 이만갑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Unreported World(언리포티드 월드)'에 담아내기 위해서다. 언리포티드 월드는 채널4의 국제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루는 단편 다큐멘터리다.

채널4의 프로그램 코디 캐서린 리씨는 "이만갑을 통해 탈북자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통쾌한 역발상... 여성동아 표지에 남성 아이돌 유쾌한 SNS... 톱스타 결혼현장 등 속보체계로

여성동아, 신선한 실험 화제 남성모델 단독등장은 처음 “멋져요” 젊은 독자층 접속 폭주... 미디어그룹 내부와 협업도 강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잡지인 ‘여성동아’가 색다른 실험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독자층을 넓히고 콘텐츠의 파급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도다.

여성동아는 2017년 4월호 표지 모델로 아이돌 그룹 B1A4를 내세웠다. 1933년 ‘신가정’에서 출발한 이래로 여성동아에서 남성 모델이 단독으로 등장한 것은 84년 역사 만에 처음이다. 김민경 여성동아 팀장은 “젊은 독자층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재미있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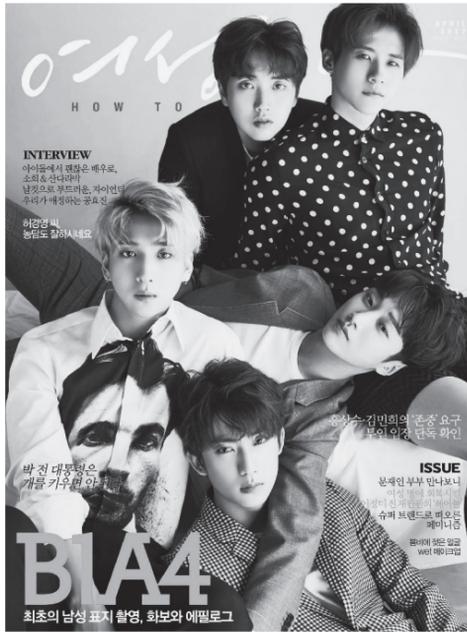
사진 촬영 현장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것도 새로운 시도였다. 한국은 물론 이탈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10대와 20대 젊은층의 접속이 폭주했다. 3월 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표지 촬영 현장에서 B1A4의 한 멤버가 페이스북 카메라

를 보고 인사를 하자, “멋져요” “I Love You”와 같은 댓글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여성동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8개의 영상은 2주 만에 조회수가 5만2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여성동아는 2030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독자층을 겨냥한 새로운 플랫폼을 늘려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 젊은 독자들이 SNS 상에서 여성동아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톱스타의 결혼식 현장이나 패션쇼 소식은 물론 오세득 스타 셰프의 결혼, 이인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딸의 결혼 등의 단독 보도도 SNS를 통해 먼저 전달됐다. 또한 지난해 중국어판 ‘여성동아CHINA’를 창간하는 등 해외시장도



활발히 개척 중이다.

콘텐츠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동아미디어그룹 내부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여성동아는 지난해 최순실 씨가 매주 청와대를 드나들며 국정정에 관여했

다는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을 단독 취재했다. 이 인터뷰를 여성동아가 아닌 채널A에서 먼저 보도할 수 있도록 협업해 콘텐츠 파급력을 키웠다.

출판국 여성동아팀 김명희

9대 암 극복 프로젝트 ‘몸신’ 단행본 4탄 출간



암에 관한 예방법 등을 다룬 ‘나는 몸신이다’ 단행본 4탄.

채널A 장수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방송 내용을 엮은 단행본 4탄이 나왔다. <나는 몸신이다: 9대 암 극복 프로젝트>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한국인에게 가장 취약한 9대 암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각 분야 내로라하는 명의들이 암의 특징과 이상증후, 원인과 예방, 꼭 알아둬야 할 상담 Q&A까지 평소 진료하며 겪은 사례들을 정보 중심으로 정리했다.

또 스스로 개발한 자연 치유식으로 암을 이겨낸 몸신들의 비장의 치유법도 소개되어 있다. 몸신만의 치유 법상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암 환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다. 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수시 자가진단 법도 수록돼 동우들의 건강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출판국 출판팀 이기숙

학습조직, 실행공동체로 전면 개편

DAMG 새로운 ‘학습의 시대’... CoP 공모 지난달 21건 신청 ‘신사업개발’ ‘디지털콘텐츠’ 주제 다양... 성과창출에도 초점

동아미디어그룹의 학습조직이 ‘CoP(Community of Practice·실행공동체)’로 전면 개편됐다.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결과가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성과 창출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4월부터 본격 활동 시작

지난달 진행된 CoP 공모에는 사내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모두 21건의 신청이 몰렸다.

이중 인재육성위원회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CoP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에 신청된 CoP의 학습 주제는 신사업 개발부터 일자리 창출, 국내 정치, 중국을 비롯한 지역 연구까지 다채로운 것이 특징.

특히 디지털의 특성을 저널리즘에 접목시켜 보려는 고민을 담은 신규 CoP 신청이 쏟아졌다.

‘크리에이터(Creator) CoP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 연구, ‘신사업개발연구회’ CoP는 모바일·웹·게임 콘텐츠 및 마케팅의 특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은 코딩과 파이썬 등 데이터 저널리즘의 심화 연구에 도전한다.

그런가 하면 ‘뉴미디어 이미지 콘텐츠 연구회’ CoP는 최근 뜨거운 이슈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의 연구로 종이매체에 도입할 수 있는 새

로운 사진 활용 방식을 연구 주제로 내세웠다.

성과 창출에 주력

서로 다른 국·실·본부 소속원들이 하나의 CoP에 참여해 ‘경계의 파괴’를 시도하는 흐름도 눈에 띈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DMC)’ CoP는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을 중심으로 디유넷과 미디어랩A 등 모두 6개 조직의 직원 15명이 CoP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연구중심’과 ‘남북한포럼’ 등 기존의 학습조직들 역시 속속 CoP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차기 심사를 앞두고 기존 활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외부강사 특강 뿐 아니라 외부 컨퍼런스 참석과 사례 연구 및 발표 등을 통해 학습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들의 포부다.

‘서로 배움에 자극’

CoP 모집과 심사는 반기별로 1년에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장은 “CoP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올해 3대 경영방침 중 하나인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 단추”라며 “서로에게 더 좋은 배움의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손다혜

‘A-Pride 콘텐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법무교육 실시



3월 21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채널A 제작진들이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채널A의 ‘A-Pride 콘텐츠’ 제작을 위한 법률교육이 3월 21일부터 4월3일까지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동 DDMC에서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변호사들은 저작권의 개념, 올바른 저작권 사용법,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는 채널A 보도본부 데스크와 앵커, 제작본부, 프로그램제작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장수민

울퉁불퉁 근살 제로 몸신 운동법

직장인들은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뱃살이나 옆구리, 허벅지 근살이 찌기 쉽습니다. 몸신에서 소개된 ‘아코디언 운동법’과 ‘허벅지 바운스 운동법’은 상·하체 근살을 잡아주고 탄력 있는 바디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아코디언 운동법은 아코디언처럼 몸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동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몸을 접을 때는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몸을 펼 때는 배꼽이 하늘로 솟는 느낌으로 반복합니다. 운동용 밴드가 없는 분들은 식탁에 스타킹을 걸어놓고 해도 됩니다. 허벅지 바운스 운동법은 다리를 위아래로 반동을 주면서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법입니다. 반동을 주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는 뒤꿈치를 드는 발을 고정해야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다리 모양을 바꿀 때 골반이 크게 틀어지면 허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손으로 골반을 잡아 상체를 고정해야 합니다. 동영상은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채널A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전략팀 김재운

상체 근살을 잡아주는 ‘아코디언 운동법’



① 운동용 밴드를 고정시킨 후 그 밑에 눕는다.



② 반대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팔과 다리를 일자로 펼치고 밴드를 당길 때 다리를 굽힌다.

하체 근살을 잡아주는 ‘허벅지 바운스 운동법’



① 골반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어깨너비 만큼 벌린다. 반동을 주며 다리를 상하로 움직인다.



②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들고 발꿈치를 들어 올린다. 그 상태로 상하 반동을 주며 움직인다.



③ 발꿈치를 올린 채, 다리를 안쪽으로 꺾는다. 그 상태로 상하 반동을 주며 움직인다.(8회씩 반복).

